

일반 연제

5월 23일 (금)

신혈관성 고혈압의 치료방법에 따른 예후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, 외과학교실¹, 진단방사선과학교실²

이재욱, 장혜련, 주권욱, 김연수, 안규리, 한진석, 김성권, 이정삼, 김상준¹, 정진욱²

목적: 신혈관성 고혈압에 대하여 최근 경피적 혈관성형술 및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법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, 진단 기술의 발달 및 원인 질환의 변화로 진단법의 선택과 혈압 및 신기능의 치료 반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이에 연구자들은 신혈관성 고혈압에서 치료방법에 따른 예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.

방법: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1983년-2002년까지 혈관조영술과 기능검사로 확진된 신혈관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기저 질환, 혈압 및 혈청 크레아티닌 등의 임상 소견과 6개월 이상 추적관찰이 이루어진 환자들에서의 치료반응 및 예후를 평가하였다.

결과: 60명의 환자 중 남녀비는 34:26 (1.30:1)이었으며,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은 37.7(8-77)세였다. 일측성 신혈관 협착은 37명(61.7%), 양측성 신혈관 협착은 23명(38.3%)에서 관찰되었다. 원인 질환으로는 죽상경화 22명(36.7%), 타카야쓰 동맥염 19명(31.7%), 섬유근 이형성증 11명(18.3%), 기타 8명(13.3%)이었다. 내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명(40.0%), 경피혈관성형술 또는 혈관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는 24명(40.0%)이었고,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12명(20.0%)이었다. 각각의 치료군의 진단 당시 혈압은 각각 $181.8 \pm 24.8/114.8 \pm 19.8$ mmHg, $187.8 \pm 22.5/114.1 \pm 20.9$ mmHg, 197.0 ± 24.4 mmHg/ 121.2 ± 20.0 mmHg, 진단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은 각각 1.27 ± 0.58 mg/dL, 1.32 ± 0.73 mg/dL, 1.42 ± 0.57 mg/dL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내과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 24명을 평균 76(6-253)개월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압은 $144.1 \pm 17.5/84.9 \pm 13.7$ mmHg로 유의하게 혈압이 조절되었고, 투여한 항고혈압약제의 종류(2.1 ± 1.0 개)와 혈청 크레아티닌(1.24 ± 0.32 mg/dL)은 치료 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방사선학적 중재술을 받은 환자 24명을 평균 63(6-185)개월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압은 $143.6 \pm 29.3/87.5 \pm 17.5$ mmHg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, 고혈압의 완치 8명(33.3%), 호전 12명(50.0%), 무반응 4명(16.7%)의 치료 성적을 보였다. 신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1명, 안정적으로 유지된 환자는 21명, 호전된 환자는 2명이었다.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12명을 평균 87(6-228)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압은 $120.0 \pm 20.5/86.6 \pm 11.2$ mmHg로 유의하게 저하되었고, 고혈압의 완치 2명(16.6%), 호전 9명(75%), 무반응 1명(8.3%)의 치료 성적을 보였다. 이들 중 신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환자는 10명(83.3%), 호전된 환자는 2명(16.7%)이었다.

결론: 연구자들은 죽상경화가 신혈관성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, 방사선학적 중재술 및 수술적 치료가 모두 혈압의 조절 및 신기능의 보존에 우수한 성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.